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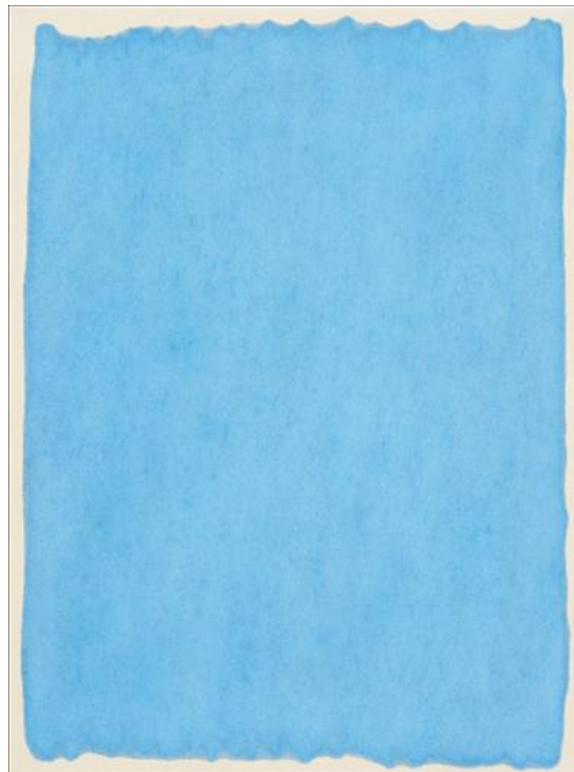
세필의 감각으로 변화를 즐기다...김홍주 개인전

2015.12.17 | 김정선 기자

page 1 of 2

끊임없이 회화의 본질을 탐구해 온 작가로 평가받는 김홍주의 개인전이 종로 삼청로에 있는 국제갤러리에서 17일 시작됐다. 김홍주는 1970년부터 당시 유행하던 미술사조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기법을 찾아 독창적 작품세계를 보여준 작가로 알려져 있다.

이날 전시공간에서 만난 작가는 "초기에는 정밀묘사를 많이 했는데, 세필을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니 그 붓으로 캔버스에 그어지는 감각에 익숙해져 세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작가가 '바늘'에 비유할 만큼 끝이 뾰족한 세필은 디자이너들이 주로 대상을 세밀히 묘사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Kim Hong Joo, Untitled, 2015,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그는 "통상의 그림 틀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세필이 갖는 다양한 변화와 감각에 주목하며 작품활동을 해 왔다"고 말했다. 작가의 말대로 전시작에는 구체적인 형태가 보이거나 이미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1990년 작가노트에 "나의 사고가 그림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림들이 내 사고를 결정해간다"고 적은 것처럼 그는 미리 그리고자 하는 것을 정하고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때문인지 작품의 색채는 작가의 말대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컬러"가 됐고 때로는 그림의 형태가 향아리, 입술 모양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이름을 특정하긴 어렵다.

국제갤러리는 전시작에 대해 "구체적 형상이 더욱 희미해져 일부 작업들은 마치 벽지의 무늬와도 같은 모습을 연상 시키지만, 그 기법은 여전히 무수한 붓질과 노동으로 축적돼 있다"며 "엄청난 노력으로 그렸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아무것도 그리지 못한 그림이자 거시적으로는 파스텔 톤의 편안함 이면에 격렬한 붓질의 축적과 사유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새해 1월24일까지. 문의 ☎ 02-735-8449